



보도시점

2026. 2. 10.(화) 14:00

2. 11.(수) 조간

배포

2026. 2. 10.(화) 09:00

사람이 머물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통보, 농어촌 주민에게 2월 말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 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였으며,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확대하였다(읍 주민: 3개월). 또한,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었다.

*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 / ** 면 단독 생활권: 15만원, 면+읍 생활권: 5만원

이번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여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 주요 내용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 Q&A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중 (044-201-2811)
		담당자	서기관	이경미 (044-201-2826)
			사무관	박승민 (044-201-2817)

붙임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안) 주요 내용

- **(추진목적)**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 **(지원내용)**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사업기간)** '26~'27년(2년간) * '26년 국비 예산 : 234,075백만원
 - **(대상지역)**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8개 도 10개 군)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지급절차)** 신청(상시, 최초 1회 신청) → 자격 확인(매월 1일~20일경, 읍·면) → 지급 대상자 결정(매월 20일경, 읍·면위원회) → 지급(군, 매월말)
-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읍)** 모든 면에서 사용, 주유소·편의점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읍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읍 내 가맹점 및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면 하나로마트가 지방정부와 MOU를 통해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중심지 집중 업종*은 제한 없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사용기한)**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

1.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
- *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동일
- 이 경우에도 지급 요건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3.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 (관내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
- (관외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4.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 가능
-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 지방자체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 가능
-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6.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 '25.10.20일(목천, 장수, 곡성은 '25.12.2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7. 군인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지?

-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

*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